

말씀을 붙잡고 새 것이 된 사람들

- 복음으로 여는 고린도후서 -

잠언4:1-9, 고린도후서5:17

정윤돈 목사님

“전지전능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불신앙하여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속아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토록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고 모든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천명과 언약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금은 예배현장에 오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30 배, 60 배, 100 배의 영적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대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의 훈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고린도교회에게 보낸 편지이다. 혹자는 디도를 통해서 보낸 다른 편지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고린도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강단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옛 체질과 잘못된 생각과 삶을 말씀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바꾸었다.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한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다.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도록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체험해야 한다. 그 결과 고린도교회는 지속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은 모델적인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다. 잠언 말씀에서는 훈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부모님과 선생님과 목사님의 훈계의 말씀을 거역한다. 잠언 12장 1절에 이런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훈계와 징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은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탄에게 속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훈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의 강단의 말씀을 먼저 순종해야 한다. 교회는 인턴십의 현장이다. 예수생명, 예수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훈계의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도구 6가지를 통하여 고린도후서 속에서 우리들이 적용해야 할 언약의 말씀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하나님의 도구 6가지인 LVTNPO는 Leverage(지렛대), Vessel(그릇), Transmission(전달), Platform(중심), Nobody(아무도), Outsourcing(소통, 위탁)이다.

1. 첫 번째로,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Leverage, 즉 영적인 지렛대를 발견할 수 있다.

(1)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렛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다.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이 망하는 자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생명을 가졌지만 병들거나 부패한 부분이 있으면 악취를 풍길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나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 받아야 한다. 이번 주에는 지금 나에게서 풍기고 있는 악취는 무엇인지 적어 보시기 바란다. 교만, 자신의 의, 율법주의, 잔소리, 자기자랑, 강한 표현, 불신앙, 염려 등,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악취라고 할 수 있다.

(2) 레버리지의 두 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경제적인 축복의 지렛대도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안디옥교회도 전 세계가 흉년이었지만 오히려 다른 교회를 도와주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영육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2. 두 번째로 붙잡을 언약은 Vessel, 그릇이다.

(1)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귀한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절대불가능한 상황도 이길 수 있고, 이룰 수 있다. 결국 우리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결국은 237 나라를 살리는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일곱 명의 램넛트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이러한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2)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그릇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의 그릇이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당한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그릇이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릇을 넓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3. 우리는 고린도후서 안에서 Transmission, 전달, 소통의 언약을 발견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3 장 3 절 말씀을 보겠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새 가족들은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전파에 방해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더 지혜롭고 덕스럽게 행동을 해야한다. 불신자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동을 먼저 보기 때문이다.

4. 고린도후서는 Nobody 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렘넌트 제자 디도는 Nobody 를 Everybody 로 변화시킨 전도자였다. 사도 바울도 해결하지 못했던 고린도교회의 문제가 렘넌트 디도를 통하여 해결되었다. 고린도후서 7 장 13 절에 말씀에 보면 그러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우리도 가정에서나 직장, 학교, 교회에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의 응답을 받기를 축원드린다.

(2) 고린도교회는 nobody 의 헌금을 했다. 그들 중에는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했던 성도들이 있었다. 고린도후서 8 장 2 절의 말씀이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액의 헌금을 했다. 그런데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들은 어디에서야 하겠는가.

5. 다음은 Platform 즉, 소통의 중심이다. 고린도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플랫폼의 응답을 받은 교회였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도 RUTC 센터와 237 센터를 통하여 이러한 응답을 받아야 하겠다. 항구도시 고린도는 당시 정치, 경제, 철학의 중심지였고 무속, 점술, 우상의 플랫폼이었지만 이후에는 거듭나고 회개하여 복음의 플랫폼으로 변화되었다. 새 것으로 변화된 것이다. 고린도후서 5 장 17 절 말씀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거듭나야 하며 그 방법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2 장 9 절이다. 사도 바울이 병이 있어서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2 장 10 절에 보면 많은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고백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이 정도로 고백하도록 거듭나는 사람, 새 것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6. 마지막은 Outsourcing 의 응답이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위탁해 주셨다. 고린도교회는 처음에 이러한 천명을 깨닫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의 꾸지람과 권고를 듣고 결국은 위탁받은 사명을 감당하였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위탁받은 사명은 고린도교회의 잘못을 꾸짖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고린도후서 7 장 8 절에서 10 절의 말씀을 보겠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앎이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사역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사역이고 강단메시지를 붙잡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주에는 고린도후서를 직접 읽어보면서 고린도후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6 가지 도구를 찾아보기를 바란다.

결론으로, 우리들이 도전해야 할 미션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먼저 2021년에는 복음, 오직복음, 완전복음을 더욱 깊이 묵상해보기를 바란다. 고린도교회는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나 오직이 안 되었고, 완전복음과는 멀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복음으로 거듭났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며, 충분하며,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완전복음이다.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체질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로 결론나면 모든 응답의 현장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있다.

2.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사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린다. 이 때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통신망과 하늘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3.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되도록 준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모든 빈 곳에 영적인 파수꾼, 의사, 대사로 쓰임받기를 바란다.

4. 2021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참사랑 RUTC 의 응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란다. 모든 성도들이 RUTC 헌금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5.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든 응답의 시작과 끝은 전도에 있음을 체험하기를 바란다. 300 명단을 적고, 300 영접, 30 다락방, 3 지교회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모든 답과 축복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수생명, 예수능력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축원 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영성, 믿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있지 않고 고린도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새 것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 정말로 기쁨이 되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